

이순신 열풍에 주목 받는 '해남 울돌목'

물살 최고 13노트... 짐승들 울부짖는 소리

조류 속도는

이순신 장군은 밀려드는 왜선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좁은 해역을 지키고 서 있었다. 거센 조류가 변해 회오리가 치기를 기다리며 사투를 벌인 영화 '명량'의 명장면 중 하나다.

그렇다면 명량해전의 격전지 해남 우수영 울돌목 조류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19일 해남군이 답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협수로로 한국수역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곳이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유속은 13노트(24km/h)로 물살이 회오리치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날 정도로 웅장하다. 통상 유속은 7~10노트다.

해군 총무관리대사센터 제장명 교수는 지난해 명량울돌목 역사교실 발제 자료에서 "최강유속이 11.6노트(21.5km/h)"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 수군의 전선 운항속도가 3노트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인 셈이다.

제 교수는 "명량해전이 발생한 1597년 9월 16일 조류에 대해 오전 8시 48분께 9.7노트로 흐르다가 12시 57분에 썰물로 바뀌면서 오후 3시 3분께 8.4노트로 흘렀다"고 설명했다.

정오에 울돌목에 도착한 왜선은 썰물로 바뀌며 회오리치는 거센 물살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맥없이 무너졌다는 게 제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계 최초로 울돌목에 조류발전소가 건설됐다. 그러나 빠른 물살 때문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두 번이



나 실패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영화 명량의 인기로 힘입어 요즘 울돌목의 빠른 유속을 보려는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안전하면서도 실감 넘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포인트<사진>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남군은 우수영관광지 대표소 바로 옆에 설치된 정자 등 3곳을 관광 포인트로 지정, 홍보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전남도 '명량 마케팅' 분주

리더십 캠프·유적지 투어 등

전남도가 영화 '명량'의 흥행 돌풍을 계기로 '이순신 마케팅'에 나섰다.

영화 '명량'의 배경이 진도 울돌목인 데다 도내 곳곳에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우선 이순신 관련 유적지, 전쟁사, 문화, 설화 등을 모두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명량대첩지를 비롯해 전라좌수영 본영이자 거북선을 만든 곳으로 알려진 여수 진남관과 선소, 명량대첩 뒤 전력을 재정비한 목포 고도도, 고흥 뱃포 등 곳곳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전남도는 또 관광객을 상시 끌어오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이순신 관련 단기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순신 유적지 투어 및 포토

에세이 대회 개최, 울돌목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순신 리더십 캠프 운영, 백의종군로 걷기대회 등이다.

특히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기간에는 영화 '명량' 상영과 감독 및 주연 배우 초청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제 하이라이트인 해전 재현 행사는 선박 100여척을 동원해 매머드급으로 치른다.

광양시도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 펼쳐진 광양만 일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조·명연합군과 소서행장이 이끄는 왜군과의 치열한 전투지였다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스토리텔링과 유적지를 발굴해 광양만을 한·중·일 동아시아의 국제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필수·광양=박영진기자 bungy@

경남 양산에 22·23일 '진도 특산물 장터'

진도와 자매결연 도시

세월호 침사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진도군민을 돕기 위한 '진도군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경남 양산에서 열린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의 자매결연 도시인 양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물금신도시 워터파크에서 '진도군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장터는 22일 오후 2시~10시, 23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열린다.

직거래 장터에는 진도군내 정보화마을 3곳(서포 검정살마을, 점도 웰빙마을, 조도 행복환심마을)이 참여한다.

김, 멸치, 홍새우, 툷, 돌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과 검정 찹쌀, 울금, 잡곡 등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양산시는 추석 연휴 전 공무원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직거래 장터 이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와 시내 읍·면·동을 통해 진도군 특산물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세월호 침사 이후 관광객 감소와 특산물 판매 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직거래 장터 행사를 마련해 하루빨리 경기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편지·묵주

실종자 10명 가족들에 전달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실종자 가족 여러분의 희망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침사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와 묵주가 19일 진도 팽목항에서 전달됐다.

이날 교황을 대리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팽목항을 찾은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호 주교는 "교황께서 주교들에게 지역의 지킴이, 희망의 지킴이가 돼달라며 누구도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교황은 영문으로 편지를 작성해 한글 번역을 거친 뒤 자필 서명을 넣어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가족들을 위한 묵주에는 교황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안산대리구장인 김건태 신부는 "교황님께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글씨로 쓰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바로 내가 손잡은 것처럼 실종자 가족들 손을 꼭 잡고 나의 마음을 전해달라'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교가 교황의 편지를 대독하며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이들이 모두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일부 가족은 눈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침사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편지와 묵주(오른쪽 위) 선물이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호 주교와 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를 통해 19일 진도 팽목항에서 전달됐다. /연합뉴스

을 흘리기도 했다.

126일째 매일 반복되는 희망과 고통 속에 살아온 실종자 가족들은 소외된 곳에 임하는 상징적인 인물인 교황이 자신들을 잊지 않은 데 대해 위로를 받았고 한기닥 희망도 얻은 것처럼 보였다.

단원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45)씨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실종자 가족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씨는 "저희의 모든 것이었던 가족을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아직 수색하지 못한 구역을 속히 진행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정부 부처에서도 교황님께서 전

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수색에 모든 힘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편지 전달 자리에는 실종자 가족들과 사고수습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유가족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가수 김장훈씨,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김경민기자 kki@

탈출 에볼라 환자 17명 치료센터 이송

지난 16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에 있는 에볼라 격리센터를 탈출했던 17명의 에볼라 환자들이 발견, 치료 센터로 옮겨졌다고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라이베리아 루이스 브라운 공보장관은 "지난 주말 달아났던 에볼라환자들을 모두 발견해 다른 진료소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17명 모두의 소재가 확인되고 JFK 에볼라 전문 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료 의사의 말을 인용, "시험 단계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지엠'을 공급받은 3명의 아프리카인 의사가 주목할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밤 몬로비아의 빈민가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에볼라 격리센터에 곤봉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 "에볼라 없다"고 외치며 집기 등을 약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치료소에 격리돼 있던 에볼라 환자 17명이 탈출했다.

/연합뉴스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다문화 가정 지원

이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서양새마을금고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공사시방서, 공사도급 계약서,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공사비목명세서,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2014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총결산 및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말한다 !!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쟁취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8.22(금)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토지투자의 정석법 강의(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각종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전국 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강의, (현)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